현 中3, 내신·학종·수능 '지옥의 트라이앵글' 강화되나

2022 대입제도 개편 해설

주요과목 상대평가·수능 확대
수능최저학력기준도 대학 자율
선발비율 등 고2까지 '혼란' 예상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중3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4년 뒤에도 수험생들은 내신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주요 과목의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능위주전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수능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해 수능의 대입에서의 변별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선발비율·수능최저 고2까지 기다려야 '혼란 여전'

7일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종합해 보면, 정시 모집은 확대하되, 그 비율은 대학이 정하도록 했고,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역시 대학 자율이다. 수능은 현행 상대평가 기조 속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권고안에서 수능위주전형 선발 비율을 정하지 않기로 해 안갯속이다. 현 중3의 경우 대학별 모집요강이 확정되는 고2가 될때까지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수능위주전형 선발 비율은 당초 국가교육회의가 의제1에서 '수능전형 45%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의제2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오차범위 안에서 1,2위로 나와 단일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만약 의제1이 채택됐다면 수능전형 45% 이상을 권고했을 것으로 보여, 수능전형의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시민참여단의 일반대학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 수능위주전형이 '40~50%'(27.2%)가 가장 많았고, '30~40%'(21.2%)로 나타났다. 누적통계기준으로 보면 응답자의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봤고, 47.3%는 40% 이상을 선택했다.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평균치는 약 39.6%로 나왔다. 올해 대입에서 수능위주전형 선발 비율은 20.7%로 2020학년도에는 19.9%로 소폭 준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이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론화위가 지난 3일 이와 관련해 "시민참여단은 수능위주전형이 45% 이상은 너무 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고, 입시 전문가들 또한 40% 내외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가교육회의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대학 설립목적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해 수능위주선발 비율의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설립유형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등 대학별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달리하는 최종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 수능 국·수·탐구 '쏠림 현상' 커질 듯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권고해 현행처럼 대학·모집단위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들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학생부위주전형을 치르는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처럼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 등 주요 과목은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제2외국어 절대평가의 경우 그동안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로 절대평가 시행 요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부 과목 절대평가의 경우 지난해 첫 도입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때 처럼, 상대평가 과목에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 해당 과목 사교육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발표 직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공론화 결과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방안 등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안에서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두 담고자 하는 국민적 고뇌가 공론화 과정과 결과, 이번 최종 권고안에 두루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대입 제도 개편안과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8월 안에 차질없이 대입개편안을 마련하는데 혼신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중앙대 '다빈치 봉사단'

印尼서 한국어 교육봉사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재학생 봉사단체 '다빈치 사회문화봉사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Universitas Nasional(이하 UNAS)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주간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봉사는 한국어교육, 태권도, K-Pop, 전통공예수업 등으로 이루어지며, UNAS 학생들로부터 인도네시아어와 전통문화를 배우는 등 상호간 이해를 위한 교류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신희웅 학생(사회복지학부)은 "그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봉사활동 이상의 것을 배울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세종대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세종대학교(총 장 배덕효)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하는 '빅데이터 청년인재 일자리 연계 사업'의 인재양성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달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센터장 유성준 교수)는 '파이썬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열고, 교육생 60여 명을 선발해 약 2개월간 실무 중심의 빅데이터 교육을 운영 총괄한다. 교육생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초 이론 ▲파이썬 프로그램 활용법 ▲실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로 구성된 전문 과정을 수강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취업프로그램 및 취업 연계의 기회가 주어진다.

대한불교조계종

동국대에 1000만원 기부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지난 6일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스님)가 한태식 총장을 만나 학생단체인 '동국108리더스'를 위해 써 달라며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는 2010년 11월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개원했으며 간화선 수행과 템플스테이, 선문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스님(오른쪽)이 지난 6일 한태식 동국대 총장을 만나 1000만 원을 기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

이번 기부는 평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국108리더스와 인연을 맺어온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가 해당 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다. /한용수 기자

구직자 10명 중 8명 "수능보다 취업이 '더' 힘들다"

사람인 구직자 301명 설문조사
더 어려운 이유 "정답 없기 때문에"
"수능때로 돌아가고싶다" 61.8%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 구직자 10명 중 8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취업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사람인이 수능시험 경험이 있고,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1%가 '취업준비가 수능시험 준비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취업준비가 더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는 수능시험처럼 '정답이 없기 때문에'(58.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수능점수와 달리 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55.9%), '스트레스 강도가 더 세서'(43.3%),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서'(42.9%),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42.9%), '준비해야 할게 너무 많아서'(29.1%) 등이 있었다.

실제로 '취업준비를 하는 지금보다 수능시험을 보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구직자는 61.8%였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취업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61.8%)가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준비보다 차라리 입시준비가 나은 것 같아서'(37.6%), '전공으로 인해 입사지원하기가 어려울 때'(37.1%), '전문직이 고용안전성과 보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30.6%) 등의 순이었다.

또 직장인들은 다시 수능을 치른다면 공과대학(27.4%)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학대학'(25.3%), '경영대학'(9.7%), '사범대학'(9.7%)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이공계 계열 채용규모가 크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인재 수요 급증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용수 기자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 창업 설명회 실시

금성출판사는 푸르넷 공부방이 8월 한 달 간 전국에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푸르넷 공부방은 금성출판사의 53년 노하우가 축약된 초중등 대상 전과목 학습기관으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다. 특히 재택근무와 육아, 가사를 병행할 수 있어 경력단절여성이나 가정주부 사이에서 제2의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금성출판사는 8월 한 달 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시도에서 푸르넷 공부방 시스템 소개와 교육사업 관련 정보 등 창업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연다. 4년제 대학 졸업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푸르넷 공부방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일정을 확인하고 전화로 접수하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푸르넷 공부방은 가맹비가 없고 공부방 개설 시 필요한 초도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임차료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금성출판사 관계자는 "금성출판사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본사와 각 지점 영업 담당자들이 회원모집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푸르넷 공부방은 오는 14일까지 제234기 푸르넷 신입 지도교사 채용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푸르넷 공부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NHN에듀

청소년 性건강 교육 지원

NHN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교육 플랫폼 기업 NHN에듀(대표 진은숙)는 6일 판교 플레이뮤지엄에서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센터장 백재희)와 청소년 성건강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NHN에듀와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성건강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공동 추진한다.

우선 NHN에듀의 학교 알림장 앱 '아이엠스쿨'과 10대용 여성 건강 관리 앱 '핑크다이어리 쥬니어'가 보유한 성교육 및 성건강 콘텐츠를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에 제공한다. 10대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 정립을 위한 온라인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협력키로 했다. 향후 '아이엠스쿨'을 이용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오프라인 성건강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